

봉의사·국민 우익수, 달 감독 도우미 의기투합

〈봉준근〉

〈이진영〉

〈김경문 감독〉

봉준근, 2009WBC서 일본 킬러 명성 이진영, 투수 투구습관 파악 국내 1인자 안치용, 국제야구 흐름·배터리 분석 국정민철·김재현·진갑용 등은 코치 중책



봉준근

이진영

현역시절 국가대표로 세계무대에서 맹활약했던 프로야구 선수 출신 봉준근(39)과 이진영(39), 그리고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초대 우승의 숨은 공신 안치용(40) KBSN 해설위원이 '김경문 호' 스태프로 합류한다. 이들은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전력분석 팀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KBO는 조만간 전력분석팀 구성을 완료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봉준근은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뒤 KBSN 해설위원으로 영입됐다. 최근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를 취재하

던 도중 대표팀 전력분석팀 요청을 받았다. 역시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이진영 역시 같은 시기 전력분석요원으로 영입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 프리미어12에서 전력분석팀원으로 맹활약했던 안치용 위원 역시 합류 요청을 받았다.

의미 있는 조합이다. 봉준근은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의 영웅

이었다.

봉준근은 2009년 WBC 1라운드 일본과 두 번째 경기에서 5.1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첫 경기 2-14 콜드게임 패배를 설욕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이 승리로 한국은 A조 1위로 2라운드에 진출했다. 봉준근은 2라운드에서 다시 만난 일본을 상대로 재차 선발등판해 5.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또 한번 승리투수가 됐다. 이어진 일본과 대망의 결승전에서도 4이닝 1실점(비자책)을 기록했다. WBC에서 일본과 3경기 마운드를 지킨 봉준근은 '봉의사'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현역시절 2125안타를 기록한 이진영은 김경문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2008베이징올림픽과 2009WBC에서 맹활약하며 '국민 우익수'로 불렸다. 특히 이진영은 투수 스스로도 모르는 아주 작은 동작의 투구습관을 잡아내는 능력이 있어 국내 최고로 꼽혔다. 전력분석팀원으로 큰 역할이 기대되

는 부분이다.

안치용 해설위원은 국제야구 흐름에 누구보다 정통하고, 배터리의 볼 배합 성향 등의 분석력이 탁월하다. 특히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브리핑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경문 감독은 12일 대표팀 코칭스태프를 확정 발표했다. 대표팀에서 꾸준히 투수파트를 책임져온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 또 한번 중책을 맡았다. 정민철 코치와 함께 최원호 SBS스포츠 해설위원이 불펜코치를 맡아 마운드 전력을 이끈다. 이종열 SBS스포츠 해설위원이 수비, 김재현 SPOTV 해설위원이 타격코치를 맡았다. 현역 프로팀 코치 중에서는 진갑용 삼성 라이온즈 배터리 코치, 김중국 KIA 타이거즈 작전 코치가 대표팀에 합류한다. 김병호 전 NC다이노스 수석코치는 전력분석총괄코치로 선임됐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내가 왜 떴게?

최진실 딸, "내 모습이 괴물 같아"



●최준희, 유튜브 : 열일곱 살 여고생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다. 스스로 "난 평범한 여고생"이라고 했지만, 이 여고생 최준희의 엄마와 아빠는 고인이 된 최진실과 조성민이다. 최준희는 영상에서 최근 두 달 동안 루푸스 병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털어냈다. 루푸스는 면역계 이상으로 온 몸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병이다. 최준희는 "몸이 퉁퉁 부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내 모습이 괴물같다. 조금 나아져서 어제 퇴원했다"며 "(영상을 통해) 회복해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힘내요, 최준희양.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우리도 열심히 응원할 게요.

와인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박중훈, 금주선언 : "이런 것까지 여기에 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배우 박중훈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금주를 선언했다. 박중훈은 "와인 의존도가 너무 심해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며 의지만으로는 버거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 끝으로 '술친구'들의 이해를 부탁하며 "그래도 저녁자리는 함께 하자"고 유쾌하게 글을 맺었다. 올해 꼭 금주에 성공해서 내년엔 다시 기분 좋게 한 잔 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뭐 이참에 썩 끊어 버리시면 더 좋고.

셋째는 더 힘이 드네요



●별, 임신 중 근황 : 하하의 와이프인 가수 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알렸다. "어플이 있어서 다행이다. 부쩍 초췌해진 물결을 조금이나마 감출 수 있으니"라며 올린 사진 속의 별은 토끼 귀와 고양이 수염을 달고 있다. 별은 남편 하하와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고, 이번이 셋째 임신이다. "겨우 15주차인데 골반이 뻐개질 듯 아프다"며 "비염이 심해졌는데 (임신 중이라) 약을 먹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셋째도 순산하시길. 그리고 비염은 어차피 약이 없어요. 시원하게 푸세요.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등 돌린 체육회-정부, 접점은 있나?

체육회-KOC 분리 정부 개혁안에 이기흥 회장 "어린이 장난" 비난 문체부장·차관, 훈련 개시식 불참

체육계와 정부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한국소프트웨어 '여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력·폭행을 당한 사실이 공개된 이후 체육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여러 종목으로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체육계 쇄신'을 언급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합속 폐지 ▲소년체전 폐지 등을 개혁안으로 내놓았다.

예상대로 체육계의 반발은 거세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엘리트 체육의 비중을 차츰 낮춰가는 정부 정책에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체육인들이 들고 일어난 분위기다.

11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진행된 2019 국가대표 훈련개시식과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도 "KOC 분리는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논의해야 한다"며 "(2020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과 2032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은 더욱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어린이 장난' '무지' 등의 다소 원색적인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 체육회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2032하계올림픽의 남북 개최도시를 서울특별시로 확정했다. 현재 문체부와 기획재정부는 체육회의 결정대로 국제대회 유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당연히 기류는 뒤숭숭하다. 정부와 체육회는 서로 등을 돌린 형국이다. 문체부 도중환 장관, 노태강 제2차관은 훈련개시식에 불참했다. 당초 체육회는 문체부 장관 또는 차관의 축사를 행사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취소됐다. 장관과 차관이 전부 불참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체육회-KOC 통합으로 양 측이 갈



체육계와 정부의 파열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합속 폐지 등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한 체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11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오른쪽). 사진 | 뉴스

등했다.

상징적인 장면은 또 있다. 이날 문체부는 최근 체육계 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가지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알렸고 체육회는 지도자, 선수, 학부모, 체육 행정가들이 두루 참여한 토론회를 따로 열었다. 노 차관은 혁신위 회의장으로 향했고, 진천 토론회는 엘리트 체육의 축소 반대가 핵심이었다.

냉랭한 분위기에서 남북, IOC가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3자회담을 갖는다. 도중환 장관과 이기흥 회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 등 남측 체육계 인사들이 북측 김일국 체육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난다. 가장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순간, 타협점을 찾은 생각이 오직 평행선만 달려나가는 체육계와 정부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불편하기만 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킹덤'이 주도하는 콘텐츠 유통의 파격

넷플릭스 첫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LG유플러스 신규 가입자 3배 증가 KT·SK도 '넷플릭스 통신망' 확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의 첫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킹덤'의 힘이 거세다. 1월 시즌1이 공개된 뒤 넷플릭스 앱은 물론 서비스를 제휴한 통신사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 등이 크게 늘어나는 등 '킹덤'을 계기 삼은 콘텐츠 유통의 변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킹덤' 시즌1은 넷플릭스가 회당 20억 원 규모의 제작비를 투자해 직접 제작한 6부작 드라마. 주지훈, 류승룡, 배우나 등이 주연한 드라마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사극으로,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1월25일 동시 공개됐다.

특히 '킹덤'은 넷플릭스 가입자들만 볼 수 있는 첫 오리지널 한국드라마라는 점과 콘텐츠 유통의 변화 조짐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넷플릭스와 제휴해 IPTV를 통해 서비스 중인 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자가 '킹덤' 공개 직후 5일 동안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LG유플러스가 케이블업계 1위인 CJ헬로를 인수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업계 2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LG유플러스를 통한 넷플릭스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통신사도 LG유플러스 가입자가 아닌 넷플릭스 이용자들을 위해 통신망을 증설하는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바늘 도박이 쇼 도박 될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이용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스마트폰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 앱 이용자는 지난해 1월 34만명에서 12월 127만명으로 4배가량 늘었다. '킹덤' 공개를 전후해 더 증가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처럼 콘텐츠 유통 방식과 플랫폼의 지형 변화를 몰고 왔다는 점에서 '킹덤'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읽게 한다. 시즌2 등 '킹덤'의 향후 스토리 전개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 작품 자체의 완성도 등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이뤄질 향후 변화의 상상에도 시선이 쏠린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